

(사)나눔인터내셔널의 북한 보건의료협력사업

양 아 름*

I. 나눔 인터내셔널 소개

사단법인 나눔인터내셔널(Nanum International)은 2004년 2월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빈곤·질병·재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지구촌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구호 및 지속개발사업을 전개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앞장섬으로써 남북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나눔과 정성이 모여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한 나눔 인터내셔널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내의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의료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나눔 인터내셔널은 2004년 북한병원에 대한 의료장비와 의약품 지원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방북하여 북한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는 남북합동치료와 의료진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통하여 2차급 병원인 ‘대성구역인민병원’, ‘모란봉구역인민병원’, 농촌병원인 황해북도 강남군 소재 ‘강남군인민병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4차급 병원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각 전문병동에 대한 지원과 의료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보건의료상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워주면서 북한 보건의료분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의료장비 수리, 보관, 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평양의료협력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최근에는 환자 진단과 검사 시스템을 정착시

* (사)나눔인터내셔널 사업팀 과장

키기 위한 ‘평양종합검진검사센터’ 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도 지원받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 탁아소, 유치원, 학교를 지정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식과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여 차례 이상 현지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배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II. 북한 보건의료협력사업

북한은 모든 수준의 병원에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의약품은 물론 의료장비, 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제, 솜, 붕대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42명으로 남한 5.3명의 약 8배 이상 되며, 모성사망률은 출생 10만명당 370명으로 남한 14명의 약 26배 이상 된다.¹⁾ 또한 결핵발생률도 인구 10만명당 178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한의 2.5배에 이른다.²⁾ 북한 당국 및 WHO에서도 전염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기초의약품 및 의료용품 생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붕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나눔 인터내셔널에서는 접근 가능한 병원부터 시작하여 최대한 북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농촌병원 지원사업: 황해북도 강남군 강남읍 소재 강남군인민병원

북한의 경우, 농촌지역 병원은 환자치료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단체는 황해북도 강남군 주민들의 환자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강남군인민병원 지원을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강남군은 20개리의 60,000여명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병원의 상황은 도시와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다. 강남군인민병원 산하에는 15개의 진료소와 5개의 종합진료소가 있으며, 리 진료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민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강남군인민병원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

1) UNFPA, 『2007 세계인구현황』

2) WHO Report, 2007.

우리 단체에서 2006년 강남군인민병원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거의 쓰러져가는 흩집 상태의 병원이었으며, 대부분의 북한 농촌병원이 이러한 상황일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병원은 의료장비를 지원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됨에 따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보수 및 증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단체에서 개보수와 증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인천항에서 탁송한 후에 건설기술자들이 방북하여 공사물자들의 사용법, 공사기술 등을 이전하고, 지역 인민위원회와 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

병원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므로 각 병동마다 이사하면서 2년여에 걸쳐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병원 원장, 의사, 간호사들이 모두 동원되어, 벽체를 쌓고, 보온재를 붙이고, 지붕을 다시 올리고, 미장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 기술자들과 함께 하며 고생한 병원 관계자들의 순박한 미소는 항상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의료장비 사용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부분도 비상발전기와 UPS 등을 설치하여 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수술실, 응급실, 외과, 내과, 소아과, 진단실, 이비인후과, 구강분원 등에 필요한 기초 의료장비, 의약품, 소모품을 지원하여 치료환경 개선과 병원기능 정상화를 돕고 있다. 강남군인민병원은 새 병원으로 바뀌어 갔으며, 많은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후송되지 않고, 바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사업은 북한의 농촌지역 군단위 병원에 대한 남측 단체 최초의 협력사업으로서의 의미 또한 크다.



2. 2차급병원 지원사업: 대성구역인민병원, 모란봉구역인민병원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1차급 진료소에서부터 4차급 중앙병원까지의 단계를 갖고 있다. 이중 각 주민지역(도시의 구역, 농촌의 군)에 설립되어 있는 2차급 병원인 구역병원은 주민들이 발병시 먼저 찾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진단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환자 진단과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2005년부터 '대성구역인민병원'과

‘모란봉구역인민병원’을 협력사업장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성구역인민병원과 모란봉구역인민병원에는 진료소용 왕진가방, 기초 진단설비(X-ray, 초음파, 내시경 등), 고려약 설비(탕약기, 환제 반죽기, 장환기, 제환기, 당의기 등), 산부인과 분만대 등의 의료장비와 기구, 이비인후과, 구강과 장비, 의약품, 소모품, 구급차 등을 지원하여 환자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으며, 겨울철 환자보온을 위한 창문, 창틀 교체와 같은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평양시에 있는 병원들은 모두 잘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오해를 하나 어느 병원도 북한 정부당국의 지원이 수십년간 없었기 때문에 30~40년 된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구역병원의 열악한 환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려약을 처방하며 환자들을 성심껏 치료하고, 장비들을 아껴서 사용하는 의료진들의 정성은 어느 곳에 비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참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고 있으며, 물자 지원에 대한 고마움과 호기심은 기대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1) 대성구역병원



(2) 모란봉구역병원



3. 4차급병원 지원사업: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북한의 4차급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평양의대병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김만유병원이 있다. 우리 단체에서 2004년 사업시작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북한 최대의 임상병원으로써 1차(진료소), 2차(구역병원, 군병원), 3차(시병원, 도병원)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환자들이 후송되어 치료받는 곳으로 평양 뿐 아니라 전국에서 환자들이 온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22개의 전문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단체는 이 모든 병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외래종합진료소, 정형외과전문병원, 비뇨기와 전문병원, 내분비중앙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차급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료장비는 30여년 이상 되었고,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수술실, 정전으로 인한 의료장비 고장, 난방과 24시간 물 공급이 안 되는 점은 북한의 여느 병원과 다르지 않다.

우리단체에서는 각 전문병원의 진단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장비(X-ray, 초음파, 내시경, CT 등)와 의약품,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술실 개보수 사업과 수술 물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수술을 돕고 있으며, 전문진단실과 치료실을 개설했으며, 남한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방북하여 시범수술, 의료기술 전수, 전문가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4차급병원으로서 다른 병원들보다 의료진들의 임상경험과 기술이 높은 편이며, 그 규모 또한 크다. 그러나 본 병원도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지원(의료장비 교체, 의약품과 소모품의 원활한 지원 등)이 없었기에 규모가 클 뿐이지 병원 상황의 열악함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원되는 장비에 대한 의료진들의 고마움과 밤새워 우리 기술진들에게 배우려는 열의와 환자치료에 대한 헌신은 어느 병원에 못지 않다.

4. 남북공동치료 및 의료진 교육사업

나눔 인터내셔널은 북한과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우리나라 의료진과 북한 의료진의 공동치료, 기술전수, 의료진 교육에 주안을 두고 있다. 2004년 우리 의료진이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북한 척추질환환자들의 수술(11명 수술, 13명 통증치료)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남한의 여러 병원 의료진이 매년 방북하여 환자치료, 시범투석, 남북공동수술, 전문가세미나, 기술전수 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우리단체와 함께 방북한 의료진, 전문가만도 200여명에 이른다.

20여년 만의 혈액투석센터 개설을 위해서는 1차로 의료진이 방문하여 현 상황을 점검한 후, 정수시설과 투석기를 탁송하여 설치하였으며, 그 이후 우리 의료진들이 매년 수차례씩 방북하여 환자치료 방법을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무혈성괴사증 환자 고관절 수술, 치과임플란트 시술, 의료진 세미나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환자와 우리 의료진들이 직접 접촉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주는 영향과 그들로부터 받는 감사함은 그 어느 것에 비길 수 없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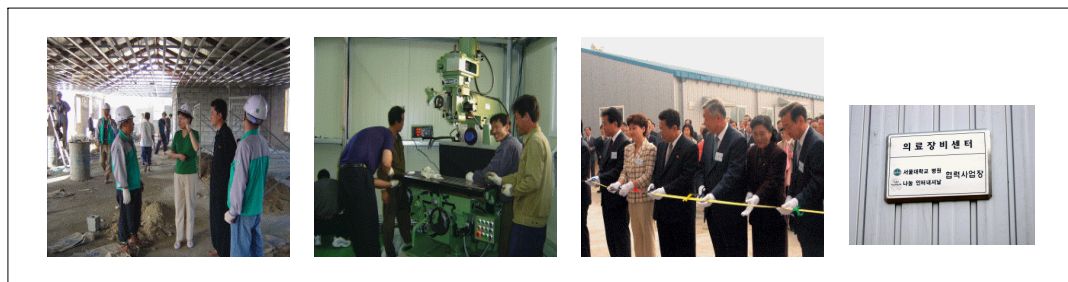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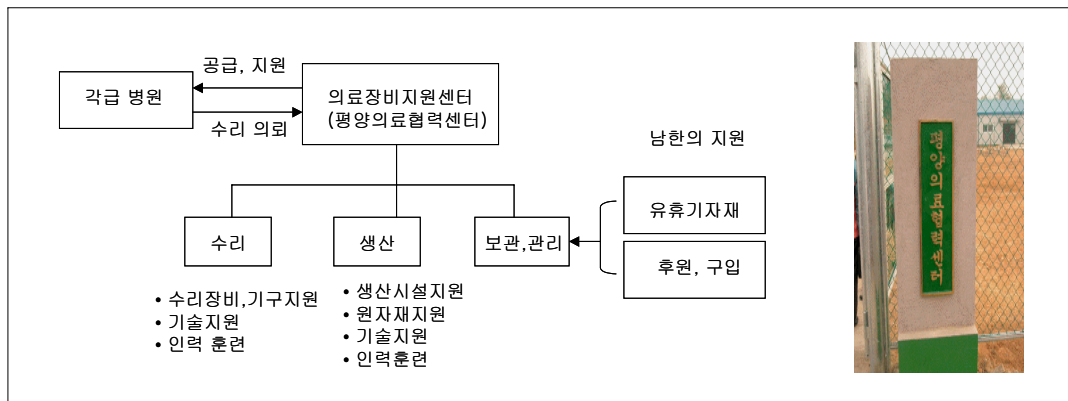
5. 평양의료협력센터 및 평양종합검진검사센터 건립사업

(1) 평양의료협력센터

북한과의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료장비를 지원하여도 북한 병원의 기반설비(전기시설 등)가 미비하여 고장이 잦고, 한번 고장 나면 수리가 힘들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단체에서는 상기와 같은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의 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005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평양의료협력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평양의료협력센터는 의료장비의 보관, 수리, 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보건의료분야 연구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5~2006년 ‘의료장비관리동’ ‘연구개발동’을 준공하였고, 2007~2008년 ‘생산동’을 신축하였다.

또한 본 사업은 북한 각급 병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장기개발사업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남한의 유희의료장비



를 지원하여 수리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막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양종합검진검사센터

우리 단체는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환자에 대한 질병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질병진단이 어렵고, 이에 따라 치료율도 매우 낮은 상황임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의료실태를 보면, 말라리아, 결핵, 간염, HIV/AIDS 감염 및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장비와 시설의 부족으로 감염자의 판별, 진단,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질병예방과 환자치료를 위해서는 각 병원의 환자검진, 검사기능을 보완하면서 중앙검사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검진검사센터”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종합검진검사센터는 북한 내 각급 병원과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주민의 검진, 각종 질병검사, 전염병 예방, 검진검사체계망 구축, 검사표준화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질병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진단 및 치료율을 높여 건강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Ⅲ. 북한 어린이지원사업: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나눔인터내셔널은 북한 환자들을 위한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북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를

지정하여 영양식을 지원하고,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는 상기 병원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하여 영양식(밀가루, 옥수수, 영양제 등), 침구, 의류, 놀이기구, 식기, 부엌 자재, 지방학생용 기숙사 용품, 책걸상 등의 교육용품과 보수자재를 개선탁아소, 개선유치원, 신원동 소학교, 평양 제1중학교, 금성학원 등에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이 전혀 안 되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방한용 보수자재(창문, 창틀)를 지원하였을 때는 그 설치 작업을 고민하였으나 지역 주민들과 교원의 세대주(남편)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공사함으로써 어린이 보육실 실내온도를 5~7도 가량 높여 줄 수 있었다. 우리 대표단들이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북한 어린이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그 안에 있음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Ⅳ. 모니터링 방북 사업

상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단체가 물자를 탁송한 후에는 매년 모니터링 대표단이 방북하여 물자 사용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장비와 보수물자는 설치작업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료장비에 대한 환자진단, 치료교육과 상기 남북공동치료사업 등을 위하여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매년 수차례씩 방북하고 있다. 우리단체 모니터링 대표단으로는 2004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총 138회, 948명이 방북하였다.

V. 향후 계획

나눔 인터내셔널은 2004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보건의료협력사업과 어린이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북한 각급 병원(2차급병원~4차급병원)의 수준에 맞는 물자지원과 기술교육, 북한 환자에 대한 직접 치료와 의료진 교육, 그리고 북한 보건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평양의료협력센터’와 ‘평양종합검진검사센터’ 사업이 그것이다. 나눔 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상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한 단계씩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과 대표단 방북이 제한되어 왔으며, 천안함 사건 이후 전면적으로 보류되고 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목적 때문이다.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경색되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감당해야하는 당사자는 북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일 것이다. 정치적 문제는 그 원인과 행위에 상응하게 대처해 나가되 북한 주민들 특히 어린이와 환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가는 것이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성숙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믿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